

‘북한의 한국전쟁수행’ 연구를 위한 문헌 및 자료분석

金光洙
(육군사관학교 교수)

1. 머리말
2. 북한 공간(公刊)전쟁사와 저작
3. UN군 노획 북한문서
4. 신 문
5. 『조선중앙년감』과 김일성 저작
6. 북한 관련 러시아와 중국 문서
7. 회고록 및 증언
8.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 연구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연구의 공백을 느끼는 부분은 북한의 전쟁수행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 냉전 종식 무렵부터 소련과 중국 문서

고 사료들의 공개에 의해 한국전쟁에서 중국과 소련의 개입 양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¹⁾ 그러나 아직도 전쟁의 한 당사자였던 북한의 전쟁수행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시 북한에 관해 연구가 진행된 주제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1) 전쟁 중 북한 정치에서 일어난 무정 숙청 사건, 허가이 숙청 사건, 박헌영과 남로당 숙청 사건, 박일우 등 일부 연안파의 정치적 숙청,²⁾ (2) 북한이 남한 점령 후 시행한 토지개혁과 인민위원회 선거, 동원 등 남한 점령정책,³⁾ (3) 북한과 중국의 휴전회담 전략,⁴⁾ (4)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세

-
- 1) 이에 관해서는 1990년대 초부터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와 중국의 자료를 소개하고 연구를 주도한 캐쓰린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와 첸 지안(Chen Jian)의 최근의 서지적인 논문들을 참조할 것. Kathryn Weathersby, "The Soviet Role in the Korean War: The State of Historical Knowledge," in William Stueck (ed.), *The Korean War in World History*(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4), pp. 61-92; Chen Jian, "In the Name of Revolutio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Revisited," in *ibid.*, pp. 93-125.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II(서울:나남출판, 1996);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두레, 1998);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서울:백산서당, 2000);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서울:백산서당, 2001); 신범식,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1집(서울:군사편찬연구소, 2001), 557-624쪽;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집(서울:군사편찬연구소, 2002), 345-471쪽.
- 2) 이에 관한 선구적 업적은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청계연구소, 1989), 97-119쪽. 최근의 연구로는 Lan'kov, A. N. *Severniiia Koreia: vchera I segodnia*(북한: 어제와 오늘) (Moskva: Vostochnaia Literatura RAN, 1995),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서울:오름, 199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선인, 2005), 392-397, 436-447쪽 등이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나 북한의 전시 숙청 사건들은 그 구체적인 상황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논쟁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 3) 김주환, "한국전쟁중 북한의 대남한 점령정책",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서울:태암, 1990), 166-206쪽; 장미승, "북한의 남한점령정책",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지음, 『한국전쟁의 이해』(서울:역사비평사, 1990), 170-203쪽; 배경식,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전시동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집(서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49-294쪽.

균전 시행 여부,⁵⁾ (5) 북한군 군 구조 및 군사작전에 대한 연구⁶⁾ 등이었다. 최근에는 박명림에 의해 북한의 전쟁 결정과 준비, 전쟁 발발 이후 1951년 초까지 북한의 전쟁수행의 부분적인 양상이 세밀하게 다루어졌다.⁷⁾ 한편 서동만은 북한 자료를 충실히 이용해 전시 북한 정치, 당·군 관계와 지방행정의 작동에 관해 선구적인 업적을 내놓았다.⁸⁾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의 전쟁 수행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적

-
- 4) 류상영, “휴전협정의 성립과정과 성격”,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지음, 『한국전쟁의 이해』(서울:역사비평사, 1990), 296-342쪽; 이병주, “한국전쟁 휴전회담 신석:중국측 신사료로 본 공산군측 협상전략, 진술”, 『중소연구』, Vol. 17, No.2(1993년 여름), 197-228쪽; 이병주, “공산측과 한국전쟁 정전회담-스탈린, 모택동의 협상지도와 전략적 목표의 차이-”, 『전사』 제5호(2003년 6월), 53-100쪽.
- 5) 강정구, “한국전쟁과 미군의 세균전”,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서울:역사비평사, 1996), 243-276쪽;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균전논쟁 비판”,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서울:백산서당, 2001), 451-480쪽. 미국의 세균전 시행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연구로는 스티븐 엔디콧·에드워드 헤거먼 지음, 안치용·박성휴 옮김,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서울:중심, 2003) 참조. 한편 엔디콧과 헤거먼의 책이 나온 해인 1998년에 러시아에서 공산권이 미국의 세균전을 조작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고 사료 12건이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세균전의 실재를 부정하는 웨더스비, 라이텐버그의 논문이 나왔다. Kathryn Weathersby, “Deceiving the Deceivers: Moscow, Beijing, Pyongyang, and the Allegations of Bacteriological Weapons Use in Korea,”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이하에서 CWIHP Bulletin으로 축약), Issue 11 (winter 1998), pp. 176-185; Milton Leitenberg, “New Russian Evidence on the Korean War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Background and Analysis,” CWIHP Bulletin, Issue 11(winter 1998), pp. 185-199.
- 6) 김광수, “한국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웅진전투”, 『군사』 제41호(2000년 12월), 313-346쪽;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2호(1999년), 217-255쪽; 김광수,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지휘구조와 후방부대 창설: 개전부터 UN군의 38선 돌파 직전까지”, 『육사논문집』 제59집 제1호(2003년 2월), 37-77쪽; 김광수, “인천상륙 이후 북한군의 재편과 구조변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주한 미군사령부 군사연구실 주최 한·미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전쟁시 한·미 군사적 역할과 주변국의 대응』(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년 6월 26일), 171-209쪽; 박기린, “북한군의 기갑부대 운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집(서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91-247쪽.
- 7)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나남출판, 2002).
- 8) 서동만, 앞의 책, 제3장.

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 결정과정과 전쟁지도, 전쟁 중 동맹국과의 관계, 전쟁 물자의 생산과 수입, 국내 동원 등 굵직한 주제들이 연구되지 않은 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 연구에 있어서 북한의 전쟁 수행에 대한 연구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이 한국전쟁에 관한 저술과 사료를 철저히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북한이 한국전쟁에 관한 공간 역사를 쓰는데 게을리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북한은 1959년, 1972년, 1981년, 그리고 1993년에 공간(公刊) 전쟁사를 발간했다. 그리고 로동당사와 일반 통사에서 한국전쟁 시기를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명칭으로 서술했다.⁹⁾ 이 저작들은 모두 해당 시기 북한정권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공간 전쟁사를 통해 좀 더 세밀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려는 외부의 연구자들은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 책이 역사 서술상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관련 북한 저작들은 몇몇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서술의 대부분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숨기거나 모호하게 처리하고, 김일성과 정치적으로 검증된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는 행동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공간 전쟁사에서 일정 시기의 전선사령관, 군단장 그리고 사단장들이 누구였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특정한 사료에 근거해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날짜를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혹은 ‘10월말’, ‘11월 초’ 등으로 모호하게 처리한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북한이 발행한 사료집으로는 남한이 미국과의 공모에 의해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한 자료집¹⁰⁾과 전쟁 중 ‘미군의 만행’을 증거

9) [북한]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1958년판) 하(서울:오월, 1988), 제25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I』 1979년판(서울:돌베개, 1989), 제7장; 김한길, 『현대조선역사』 1983년판(서울:일송정, 1988), 제2편 제3장.

10) 한길봉 편,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장소 미상:동아인쇄소, 196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ocuments from the*

하기 위해 자료집¹¹⁾을 발간한 것 외에 북한의 전쟁노력을 알 수 있는 사료 집을 발간한 적은 없다.¹²⁾ 다만 김일성의 저작만이 예외에 속한다.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허용되는 주요한 군인들의 전쟁 회고록이 북한에서 발간된 적이 없다. 전쟁에 대한 서술은 철저히 북한당국의 통제 하에 있으며 전쟁지도자로서 김일성의 위상을 흔들만한 비중을 가진 인물들의 사적인 회고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역사적 정통성의 근원으로 내세우는 ‘항일무장투쟁’에 관해 많은 유격대 참가자들의 회상기¹³⁾를 허용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만큼 북한이 한국전쟁의 모든 사실에 대해 민감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면에 관련된 한 상징적인 사건은 한국전쟁 중 중국·북한의 대표적 승전 전례였던 현리전투에 대해 연구서를 썼던 김동수 대좌의 운명이다. 김동수 대좌는 전쟁 직후 방호산 중장이 총장으로 있던 김일성 군사대학의 작전전술 강좌장으로서 북한측으로서는 성공적인 전투였던 ‘현리전투’를 객관적으로 연구해 교훈을 얻는다는 입장에서 관련 사료를 열람하고 당시의 주요 지휘관들을 면담한 후 강의 교재로 쓸 책을 완성했다. 이 교재는 당시 총참모장 김광협 대장과 민족보위상 최용건 차수의 비준을 받아 정식교재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현리전투에서 인민군이 전투에서 승리를 달성한 데는 당시 제5군단장이었던 방호산의 역할이 컸고 이 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동수 대좌는 1954년 당중앙 집중검열에서 그가 쓴 교재에서 전투의 승리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어 수령 김일성의 역

archives of the Rhee Syngman Government(Pyongyang: 1950).

- 11) 국립출판사 편,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들에 대한 미국 침략자들의 만행에 관한 자료집』(북경: 국립출판사, 1954).
- 12) 『조선중앙년감』에 실렸던 국제민주법률가협회의 ‘미군 만행’ 조서보고서, 국제과학조사단의 ‘미국의 세균전’ 조사보고서는 다음의 책에 그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김주환 엮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서울: 청사, 1989), 164-273쪽.
- 13) 김철만·오백룡/전문섭·백학림/박영순·한천추 외 지음, 『회상기: 항일유격대원들의 삶과 투쟁』 상·중·하(서울: 대동, 1989).

함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출당되고 군적에서 제명되었다. 군사대학 총장 방호산 중장은 이것이 지나친 처사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방호산은 김동수 대좌를 비호했다는 이유로 숙청당해 검덕광산 지배인으로 강등되었다.¹⁴⁾ 1954년 당시 북한에서 전투사 서술에서조차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북한 외부의 연구자들이 북한의 전쟁수행을 연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었다. 연구자들은 1990년 이전까지 북한의 전쟁사 서술을 검증해 볼 다른 자료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어디까지가 사실에 대한 서술이고 어느 부분이 선전에 해당하는지는 항상 의심의 영역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문서고 문서의 부분적 공개와 과거 북한 군인들의 증언들은 북한의 역사서술에 대해 그 진실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전쟁 당시 대사관과 군사고문단을 통해 북한의 정치·경제·군사 등 주요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던 소련측 문서들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1950년 10월부터 북한과 연합작전을 수행한 중국측 문서들 역시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이 문서들은 북한의 공식 전쟁사의 서술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적인 서술이고 어느 부분이 은폐되거나 과장되었는가를 판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자료들은 때로는 북한의 전쟁사 서술에서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사실들을 제시해 준다. 전 북한 군인들과 소련군사고문들의 회고는 문서들이 담고 있지 않은 배후의 사정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1980년대 말 경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노획 북한문서’는 연구자들에게 가공되지 않은 북한 원사료를 제공했다.

본고는 북한의 한국전쟁 수행에 관한 제 사료들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의 나라의 체계를

14) 여정, 『붉게 물든 대동강: 전 인민군 사단정치위원의 수기』(서울: 동아일보사, 1991), 46-49쪽.

가지고 집필된 북한 공간 전쟁사이다. 연구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책이다. 흔히 북한 문헌들이 강한 선전 목적을 갖고 있으며 왜곡, 과장, 은폐가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공간사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면이 어떻게 왜곡, 과장, 은폐되었는가를 검토된 적이 거의 없다.¹⁵⁾ 다음으로 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전시 북한의 전쟁수행에 관계되는 1차사료와 문서집, 증언 및 회고록을 비판적으로 개관해 볼 것이다. 이 글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전개할 수 없으며 다만 연구자들에게 가용한 자료들의 현주소를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소개할 사료와 증언 자료들은 군사 작전에 관계되는 것을 위주로 하되, ‘전쟁 수행’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포함시켜야 할 비군사적 전쟁노력에 관계있는 것들도 포함하였다. 필자는 능력의 한계로 현재 가용한 자료들을 모두 다 포괄할 수는 없었다고 자인한다. 다만 아직까지 별로 주목받지 않은 한국전쟁의 중요한 연구 영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이 글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2. 북한 공간(公刊)전쟁사와 저작

한국전쟁에 관한 북한의 저작은 대부분 공식 역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한은 전쟁 중인 1951년 2월 23일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민족해방전쟁’에 대한 역사서를 편찬할 준비를 시작하였으나¹⁶⁾ 그 저술이 처음 나타난 것은

15) 그러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증적 검토없이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에 대한 소개와 약간의 비판에 머무른 것들이었다. 강성철, “한국전쟁연구”,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근현대 편)』(서울: 일송정, 1989), 319-358쪽; 류상영,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과 성격규정”,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한국현대사의 이해 I』(서울: 태암, 1990), 54-81쪽; 주봉호, “북한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과 성격규정”, 『국제정치연구』 제7집 제2호(2004년), 239-268쪽.

1959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내부 사정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전후에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과 소련과, 연안파들과의 갈등을 고려할 때 합의된 한국전쟁 해석을 도출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사이에 개인 저술의 형태로 나타난 책은 장종렬이 1956년 12월에 탈고하여 연안파 숙청 바람이 불고 있던 1957년 1월에 발행한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이었다.¹⁷⁾ 이 책은 북한의 전쟁노력을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전쟁 승리’의 기본 요인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도 (1)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 (2) 강력한 인민군대의 존재, (3) 소련을 선두로 한 국제 민주진영의 지지 성원, (4) 맑스-레닌주의 이론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 로동당이라는 네 요소를 들고 있다.¹⁸⁾ 주목할 점은 이 책의 저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있어서 ‘김일성 동지의 연설’의 중요성은 언급하였으나, 전쟁 승리 요인에 있어서 김일성의 지도력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은 것이다. 김일성의 권위는 인정되었지만 그의 권력은 유일적인 것이 아니었다.

1957~58년의 소련과, 연안파 숙청이 이루어진 직후 북한 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59년 7월에 발행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책은 북한 최초의 공식 전쟁사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 책은 전쟁이 ‘미제국주의’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 정권의 ‘북벌’ 계획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전형적인 북침설에 입각해 전쟁의 시작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 제국주의와 남한의 이승만 정권의 야욕을 분쇄하고 미국의

16) 김일성, 「조국해방전쟁사편찬준비를 진행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에게 준 지시 1951년 2월 23일), 『김일성전집』 제13권, 164-165쪽.

17) 장종렬,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7).

18) 위의 책, 140-146쪽.

1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9).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하기 위해 북한 로동당, 정부와 인민이 ‘정의의 전쟁’을 수행한 것이며, ‘승리’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전쟁 중부터 북한정권이 유지해오던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정식화한 것이다. 이 책은 장종렬의 저술과는 달리 한국전쟁에서 김일성의 역할을 고도로 추켜세우며 특히 ‘항일유격대의 위대한 혁명 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전쟁 승리’의 한 요인으로 결부 짓고 있다.²⁰⁾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 연안파, 소련파의 숙청 이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유격대 출신들의 북한정권 장악을 정당화한 것이었다. 전쟁 중 당의 역할은 인정하되 그 당은 항상 ‘김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당’으로 언급되었다. 전쟁 중 김일성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으로 서술되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 일성 원수는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선과 후방에서의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를 천재적으로 령도하였다.”²¹⁾ 김일성과 함께 항일유격대 출신 장군들 중 이 책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군의 중요 지휘관은 최용건, 최현, 김광협, 류경수, 리영호와 갑산 출신 박금철이었다.²²⁾ 박현영, 이승엽, 허가이, 박일우, 최창익, 김웅 등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서 전쟁 수행과정에서 북한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간첩행위나 사보타지를 한 것으로 매도되었다.²³⁾ 연안 출신 고급지휘관들로서 숙청당한 무정 중장과 방호산 중장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았다.

전쟁 중 북한과 소련,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책은 두 나라가 전쟁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은폐하고 있으나 전쟁 중에 소련 외교적·물질적 지원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상의 기여나 중국의 지원

20) 위의 책, 375쪽.

21) 위의 책, 386쪽.

22) 위의 책, 48, 49, 94, 116쪽.

23) 위의 책, 100, 187, 202, 240쪽.

에 대해서는 비교적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전까지 소련의 북한에 대한 기여는 다만 “조선 인민의 민족적 해방뿐만 아니라 조선로동계급을 선두로 한 조선 인민의 사회적 해방까지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 것만을 간략히 언급하였다.²⁴⁾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이후 작전에 관해서 이 책은 작전은 “조·중 인민군”이 협동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기술하는 한편, 모든 작전적 방침과 작전 계획은 최고사령관 김일성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²⁵⁾ 전쟁 중의 소련의 군사고문단의 활동과 무기 지원에 관해서는 완전히 함구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 및 인민민주주의국가인 파란(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그리아(헝가리), 독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불가리아, 알바니아, 몽고 인민공화국, 월남민주공화국의 지원은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²⁶⁾ 소련에 관해서는 ‘위대한 소련’이 “국제무대에서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력 침공을 폭로 규탄하면서 조선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새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옹호 운동의 최선두에서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의 투쟁을 조선 인민을 지지 성원하는 운동과 합류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²⁷⁾고 하여 주로 이데올로기적 외교적 지원을 언급하는 대신, 중국에 대해서는 ‘형제적 중국 인민’들이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하였을 때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된 지원군을 파견하여 피로써 우리를 도와주었다”²⁸⁾고 하여 혈맹관계임을 표시하였다.²⁹⁾

24) 위의 책, 1쪽.

25) 위의 책, 161쪽 이하 여러 곳.

26) 위의 책, 284-288쪽.

27) 위의 책, 376쪽.

28) 위의 책, 같은 쪽.

29) 이 책의 출판시점에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듯 이 책은 한 곳에서, “중국공산당과 모택동 주석의 령도하에서 중국인민들이 진행한 장엄한 항미원조운동은 위대한 소련을 선두로한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원조와 함께 조선 인민들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케 한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위의 책, 165쪽.

과학원 역사연구소의 공간 전쟁사는 몇 가지 점에서 차후에 몇 차례 발간된 개정판 전쟁사들의 특징을 이루는 하나의 전형을 확립했다. 첫 번째는 조선인민군의 규모 및 무장, 그리고 손실에 대해 숨기는 일이었다. 부대명은 대부분 익명으로 기술되었는데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북한이 먼저 남침을 했을 가능성을 독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전 남한 ‘국방군’의 무장과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단명칭을 거명하면서 남한군이 15만명으로 증강되었다고 기술하는 한편, 인민군의 군 규모, 무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³⁰⁾ 전쟁 직후의 인민군 부대 활동에 대해서도 몇 개의 부대, 즉 서울 점령에 공이 있던 제105전차사단, 제3사단, 제4사단의 경우는 사단명칭을 언급했지만 그 외의 인민군 사단명칭은 감추었다.³¹⁾ 예컨대 제5사단은 ‘동해안에서 진격하는 한 연합부대’로, 제12사단은 ‘전선 중앙부에서 활동하는 한 연합부대’, 제15사단은 ‘이천으로 진격하는 한 연합부대’ 등으로 표현되었다. 사단명칭을 정확히 밝힐 경우 개전 직전에 조선인민군이 이미 10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을 보유하고 남한의 8개 보병사단과 1개 독립연대를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노출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같은 이유에서 조선인민군이 보유했던 병력, 무장에 대해서도 일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쟁 개시 이후의 주요 부대들과 주요 지휘관들의 명칭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에는 다른 하나의 고려사항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최현을 제외한 많은 만주빨치산 출신 지휘관들이 전투에서 패전으로 강등되거나 철직(撤職) 당했던 반면, 연안파 출신자들 중에 승리한 전투로 승진하거나 명성이 높았던 것이 부대와 지휘관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 어려운 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안파들 중에는 김웅, 방호산, 리권무, 송덕만 등이 탁월한

30) 위의 책, 26-27쪽.

31) 차후작전에서 사단명이 명시된 경우는 8월 1일 안동을 점령한 제12사단에 대한 언급이다. 같은 책, 95쪽.

전투 지휘로 명망을 얻었던 지휘관들이었다.³²⁾ 방호산 중장은 고위 지휘관 으로서는 유일한 2중영웅이었고, 중공군 참전 이후 제5군단장으로서 그의 군단은 매 공세 때마다 탁월한 전공을 세웠다. 1951년 8~11월의 UN군 하 계·추계 공세 당시에 인민군 사단장으로서 공적이 커 당시 『로동신문』에 널리 소개되던 노철룡, 조관 등은 모두 연안 출신이었다.³³⁾ 반면에 만주빨치산과 고위 지휘관 중에서는 리영호, 류경수 만이 개전 초 서울작전에서 세운 공으로 인해 영웅 칭호를 받았으나 그들이 군단장이 된 후에는 별다른 전공을 세우지 못했고, 김광협, 김일(金一), 박성철, 오백룡 등은 전투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한번 이상 철직당하거나 강등되었다. 군단, 사단 명칭과 군단장, 사단장 이름이 밝혀질 경우 특정 전투에서의 공을 세운 지휘관들과 실패에 책임을 져야하는 지휘관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 뻔했다. 1959년의 시점에 ‘항일빨치산 전통’을 외치던 북한으로서 전쟁 및 전투 지휘의 실상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만주빨치산과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의 리더로서의 정통성에 흠을 내는 것이었다.

북한 공간 전쟁사는 적축의 사상 및 포로의 숫자는 밝히지만 자신들이 당한 손실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전시에 대부분의 군대가 자신의 손실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거나 축소 발표하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불리한 전과의 보고는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쟁이 끝난 후 전쟁사를 정리할 때는 그 손실을 정확히 집계하려고 노력한다. 작전과 전쟁에서

32) 방호산, 리권무, 송덕만은 영웅 칭호가 부여되었고 『로동신문』에 방호산, 리권무의 공적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로동신문』 1950년 8월 26일자, 『조선인민군』 1950년 9월 4일자, 11월 22일자, 11월 27일자.

33) 『로동신문』 1951년 10월 4일자 기사, 「분쇄되고 있는 적의 발악적 기도: 최근 2개월여의 전투에서 적 2만 4,000여 명 살상-동부전선 조관부대 종합전과」; 『로동신문』 1951년 10월 3일자 기사. 후자는 노철룡부대가 2개월 동안 적을 5만 6,000명을 살상하는 위훈을 세웠다고 찬양했다.

의 전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교훈을 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 인민군의 손실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이를 계속 은폐함으로써 ‘전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 막대한 전투원의 손실이 밝혀질 경우 ‘전쟁 승리’라는 주장의 근거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두 번째 공간 전쟁사는 1972년 김일성 탄생 60돌을 기념하여 출판되었다. 1960년대 말의 주체사상의 강조와 김일성 개인숭배가 북한 사회의 지배적인 조류로 자리 잡은 시기에³⁴⁾ 출판된 이 공간 전쟁사는 제목부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였다.³⁵⁾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근대 및 현대사연구실과 민족보위성의 공동 작업에 의해 전 3권으로 발행된 이 공간사는 그 분량에 걸맞게 1959년판 공간사에 비해 서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러나 그 서술의 기조는 가장 반외세적이었다. 소련과 중국은 직접 언급되지 않고 ‘사회주의나라’로만 언급되었다. 1959년에 언급되던 ‘위대한 소련’, ‘형제적 중국’도 언급되지 않았다. 김일성을 언급할 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자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선행했다. 전쟁 중의 모든 전략적 계획과 결정은 김일성 자신의 구상과 계획에 의해 입안되고 그의 명령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서술되었다. 1959년판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 사단 명칭과 주요 지휘관 이름은 익명으로 은폐되었지만, 김책, 강건, 류경수, 최춘국, 김경석, 조정철 등 만주빨치산 출신 지휘관들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군사정치간부’로서 “그이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여러 차례에 걸치는 작전, 전투들을 능숙히 지휘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작전적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큰 공훈을 세운” 인물

34) 1972년은 주체사상이 ‘김일성 사상’으로 자리 잡기는 하였지만 아직 정교한 이론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다. 주체사상은 이 당시에 김일성이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으로 성격지어졌다.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86-88쪽.

35)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전 3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동경: 구월서방 번각, 1972).

로 실명으로 거론되었다.³⁶⁾ 1967년 갑산과 숙청 때 제거된 박금철과 1968년 김창봉—허봉학 사건을 계기로 제거된 김광협, 리영호 등은 1972년의 이 공간사에서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다. 한편 수령 김일성이 영도하는 조선인민군은 패할 수 없다는 승리사관이 자리 잡았다. 인천상륙작전이 있기 직전에 실패로 돌아간 낙동강에서의 제5차공세(9월공세)에 대해서도 이 공간사는, 패배를 인정한 1959년판 공간사와는 달리, “적병 3만여 명을 살상시키거나 포로로 하고 수많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파괴, 노획하였으며 적들에게 만회할 수 없는 패배를 안겨주었다”³⁷⁾고 하여 승리한 전투로 기록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인 김일성이 전투를 패전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세 번째 공간 전쟁사는 1981년 방대한 규모의 통사인 『조선전사』의 한 부분으로 출판되었다. 한국전쟁에 관한 부분은 『조선전사』의 제25-27권으로 이 3권은 『조국해방전쟁사』 1-3권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³⁸⁾ 이 공간사는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역사인식을 유지하여 김일성의 영도와 조선인민의 일치된 투쟁에 의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으나, 1972년판에서는 ‘주체’의 시각에 의한 대외적 배타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비해, 이 판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좀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72년판에서는 전시 북한과 소련, 중국과의 관계를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고자 했으나 1981년판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사실이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외교적·물질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³⁹⁾ 그러나 이 책은 출판 당시의 소련과의 소원한 관계를 반영하여 소련의 지원은 구체적

36) 위의 책, 제1권, 371쪽.

37) 위의 책, 제1권, 365쪽.

38) 『조선전사 25-27권 현대판: 조국해방전쟁사 1-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9) 『조국해방전쟁사 3』, 495-500쪽. 그러나 소련의 물질적 지원에 관해서는 매우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며 1952년 4월에 소련이 지원한 ‘밀가루 5만톤’의 지원이 1959년판 공간 전쟁사에는 언급되어 있는 반면, 1981년판에서는 다만 ‘많은 량의 밀가루’로만 언급되어 있다. 같은 책, 498쪽.

으로 언급하지 않는 반면 중국 인민지원군의 지원은 매우 호의적으로 언급했다.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하여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 만행을 폭로규탄하고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었으며 특히 형제적 중국인민은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된 지원군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우리 인민을 피로써 도와주었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해방전쟁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현명한 지도와 전시 조선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을 크게 부각시키는 바람에 중국군 참전이후의 중국인민지원군과의 작전에 관해서는 교묘한 서술로써 그 실상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군이 항상 주전선을 담당했던 전쟁의 ‘제3계단’(즉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이후 휴전회담 개시 전) 이후의 작전에 관해서 이 공간사는 그 전체 면모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부대명은 결코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행동에 대해서는 ‘아군 부대는 …… 하였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한편 인민군 부대의 작전행동에 관해서는 ‘인민군 한 연합부대’와 같은 은폐된 명칭으로 구분하여 지칭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행동은 가능한 간략하게 서술하는 한편, 김일성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인민군의 적후 활동부대나 인민유격대의 적 후방에서의 활동은 매우 자세하게 언급했다.

무엇보다 1981년판 공간사가 그 이전의 공간사와 달라진 것은 ‘전쟁 승리 요인’의 설명에 있어서 모든 요소들 위에 김일성의 역할을 올려놓은 것이었다: “조국해방 전쟁에서 조선인민의 력사적 승리는 오직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⁴¹⁾ 유일사상과 주체사상의 이론화와 함께

40) 『조국해방전쟁사 3』, 526쪽.

수령 김일성의 역할은 인민, 당, 군대 등 모든 요소위에 신격화되어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북한의 『조국해방전쟁사』에 의하면 김일성은 단지 정치·경제·외교 분야의 영도에 머문 것이 아니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진행정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자위적 군사사상과 뛰어난 전략전술 및 군사예술의 빛나는 구현과정이었으며 군사 분야에서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와정이었다.”⁴²⁾ 이전의 1959년판 공간사가 이 전쟁에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전과를 109만 3,839명의 적을 살상 혹은 포로로 하였다고 한 반면,⁴³⁾ 『조국해방전쟁사』에서는 전쟁 전과정에서 ‘인민군 부대’의 전과가 적 살상 및 포로 156만 7,123명으로 뛰어올랐다.⁴⁴⁾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계산이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체 이후인 1993년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1981년판 『조국해방전쟁사』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축약판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전 3권)를 발간하였다. 1981년판 『조국해방전쟁사』와 비교해 볼 때 새 공간사는 그 내용은 1981년판과 거의 같으나 김일성의 호칭이 ‘김일성 대원수’로 바뀌었고, ‘김정일 원수’의 전쟁에 관한 어록이 인용되기 시작했으며, 책의 내용면에서 약간의 축약과 편집이 가해졌다. 전시 문화생활 등에 관한 부분이 축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을 전후로 한 북한의 대내외관계 변화에 부응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중대한 수정을 가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시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물질적 원조에 관한 사실들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었다.⁴⁵⁾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와 ‘탈공산주의’에 대한 북한 지도층의 불만을 책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었다. 1981년판 전쟁사는 형제적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41) 『조국해방전쟁사 3』, 515쪽.

42) 『조국해방전쟁사 3』, 519-520쪽.

43)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1959년판), 358쪽.

44) 『조국해방전쟁사 3』, 511쪽.

4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3권, 233-239쪽.

물질적 원조를 직접 거론했으나 1993년판 전쟁사는 전쟁 중 소련의 지원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체코슬로벤스코(체코슬로바키아), 폴스까(폴란드), 웡그리아(헝가리), 로므니아(루마니아), 벨가리아(불가리아), 독일 민주주의공화국의 ‘원조’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그들과 무역협정 및 차관협정을 체결한 사실과 ‘경제문화 교류와 접촉’이 있었다고만 썼다.

이상에서 우리는 주로 북한 공간 전쟁사의 한국전쟁에 관한 기본적 설명들과 은폐, 과장, 왜곡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했지만, 물론 모든 부분이 그러한 서술로 일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표현은 항상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개심에 가득 찬 표현을 쓰기는 하였지만 작전의 진행경과는 미국측과 한국측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북한 공간 전쟁사가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전쟁에서 후방의 전쟁노력을 매우 중시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쟁노력에 관련된 정치, 경제 활동이 공간사에 포괄되어 있다. 둘째, 대중적 영웅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대부대 작전은 간략하게 기술하면서도 몇몇 전투 영웅들의 행동은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셋째, 전쟁에 대한 인민들의 활동은 호의적인 것들만 언급한다는 점이다. 넷째, 유격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다섯째, ‘미군의 만행’과 적 폭격에 의한 파괴, 세균전, 포로 학대 등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 및 동구 국가들에서 북한의 ‘북침설’을 부정하고 남침을 증거하는 문서고 문서 및 증언들이 속출하게 되자 ‘북침설’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1993년에 많은 수의 한국전쟁 원인 관련 단행본들을 출판했다. 그러한 성격의 책으로는 『역사가 본 조선전쟁』⁴⁶⁾ 『누가 조선전쟁을 일으켰는가』⁴⁷⁾ 『미제의 극동침략정책과 조선전쟁』⁴⁸⁾을 들 수 있다. 『역사가 본 조선전쟁』은 ‘북침설’에 관계된

46) 국제문제연구소 편, 『역사가 본 조선전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47) 차준봉, 『누가 조선전쟁을 일으켰는가』(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48) 허종호, 『미제의 극동침략정책과 조선 전쟁』 1-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문건, 도서, 잡지 및 신문 기사들을 추려 편집한 자료집이다. 책의 발행목적은 “미국의 전쟁도발 진상을 다시 까밝히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 자료집은 남한이 먼저 북한을 선제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이시도어 스톤, 호라 도미오, 데이비드 콩데, 존 할리데이, 브루스 커밍스 등 좌파적 성향을 가진 수정주의 한국전쟁사가들에 크게 의존하여 남한의 북침을 증명해보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공간사가 흔히 그러했듯이 인용이 많은 경우 전후 맥락을 떠나 몇 줄을 인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가 조선전쟁을 일으켰는가』는 주로 1980년대에 브루스 커밍스가 제기한 논리, 즉 1949년부터의 ‘38선 충돌’은 하나의 ‘작은 전쟁’이었고,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한 전쟁은 그 ‘작은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한 것임을 증명해보이고자 하는 시도다. 이 책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지금까지의 공간사에서 간단히 다루어왔던 ‘38선 충돌사건’을 1947년부터 1950년까지에 걸쳐 각각의 전투별로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이 책의 의도는 머리말에 담겨있다: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강점한 직후부터 전쟁준비를 계획적으로 다그쳐오던 미제는 1947년부터 38도선 연선에서 공화국 북반부의 일부 지역들을 점령하기 위한 국부적 전쟁을 도발하고 확대하여 왔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에 공화국 북반부 전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조선전쟁으로 알려진 전면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마치도 이 전쟁이 저들이 도발한 북침전쟁이 아니라 《남침》전쟁인 듯이 허위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는 한편, 유엔에서 저들에게 아부 굴종하는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15개 추종국가 군대까지 끌어들이므로써 전쟁의 규모를 국제적 범위에서 더욱 확대하였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93~95년 사이에 널리 공개된 러시아 문서들에 의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과 남한에 의한 ‘북침설’을 증거하기 위해 이러한 책들 외에도 북한은 전쟁의 특정 주제를 다룬 책들을 발간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성격

49) 차준봉, 『누가 조선전쟁을 일으켰는가』, 7쪽.

의 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국가가 제시하는 목적에 북한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선전적인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전쟁에 대한 교훈을 얻어내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서다. 첫 번째의 선전적 성격을 가진 책으로는 1976년에 나온 『조국해방전쟁 시기 발현된 후방인민들의 혁명적 생활기풍』이다.⁵⁰⁾ 이 책은 한국전쟁 중에 후방의 북한 인민들이 전시 증산, 알곡 생산 등에 노력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호소에 인민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호응해 위기를 극복했는가, 동시에 전시 군수물자수송, 인민군 원호를 위해 영웅적인 노력을 다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한 책이다. 다른 하나의 주제는 전시 상황에서 인민들이 어떻게 근검절약과 ‘호상적 상호부조’로 위기를 극복했으며, 인민군 후방가족, ‘애국열사’ 가족, 전재민을 돕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전쟁 시기를 다룬 몇몇 책들은 그 기본 논조는 선전적 책들과 닮았으나 보다 사실을 중시하는 학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시 농업 및 공업, 재정, 운수 등은 1950년대 말에 나온 『우리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 1948-1958』라는 제목의 경제사 책에서 ‘조국해방전쟁 시기’로 구분되어 다루어졌다.⁵¹⁾ 이 책에서는 전시경제에서 나타난 난관과 그 해소책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1992년에 나온 최중국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시경제(1950-1953)』는 한국전쟁 시기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장기전을 위해 인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비군수분야 산업을 유지해야 했던 경험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⁵²⁾

50)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국해방전쟁시기 발현된 후방인민들의 혁명적생활기풍』(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51) 변락주·박동근 외, 『우리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 1948-1958』(평양: 국립출판사, 1958).

52) 최중국,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시경제(1950-195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3. UN군 노획 북한문서

일반적으로 역사연구에서 1차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북한 연구에 있어서 1차사료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은 특별히 중요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북한의 공간 역사가들이 '선전'의 목적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많은 사실들이 은폐, 왜곡, 과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사 연구의 경우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 전쟁 중에 UN군에 의해 노획되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노획 북한문서'는 전시 북한의 실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자료의 보고(寶庫)다. 북한문서 중 군사관계 문서는 미국 메릴랜드 주 칼리지 파크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Nait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NARA) 문서그룹(Record Group : RG) 242 "Captured Enemy Documents(North Korea)"의 Box 17-53까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박스들에 들어있는 북한 군사관계 문서는 전투명령, 전투보고서, 교범, 부대 팸플릿, 편제표, 개인 노트(수첩) 등 다양하다. 또한 일부의 군사관계 문서는 Box No. 53 이후의 당·정·사회단체들의 문서를 담고 있는 박스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문서들 중 북한의 전쟁 준비와 개전에 관련된 문서들은 이미 방선주, 하기와라 료, 박명림 등에 의해 일부가 소개되었다.⁵³⁾ 몇 개의 인민군 부대 문서들은 개전과 관련하여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의 북한군 부대들의 38선으로의 이동 상황과 6월 24일과 25일 사이의 부대 행동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포천 전방의 인민군 제3사단 [제7연대]의 3개 대대장의 전투보고, 개성 전방의 인민군 제6사단의 한 군관 보고, 전곡 부근의 제4사단 예하 1개 포병대대의 「전투일지」는 인민군 부대들이 6월 24일 자정에

53) 방선주, "노획 북한필사문서 해제(1)", 『아시아문화』, Vol. 1(1986); 하기와라 료 지음, 최태순 옮김, 『한국전쟁: 김일성과 스탈린의 음모』(서울: 한국논단, 199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여러 곳.

전투명령을 받고 대기하다가 6월 25일 새벽 5시경 38선을 넘어 공격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⁵⁴⁾

개전 이후 작전에 관해서 노획된 북한 문서들은 부대 내의 작전, 훈련, 참모 활동, 군기 문제에 대한 명령서 및 보고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군사관계 박스들 중에는 인민군 제2사단, 제9사단, 제12사단의 6월말부터 낙동강 전투 당시까지 수신했거나 발송한 명령서 전체가 보관되어 있다. 특히 제2사단과 제9사단의 경우 낙동강에서 9월 공세 당시 세웠던 도하공격 명령서와 전투일람표가 들어 있어 북한군의 도하전술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또한 제2사단의 문서철 안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전선사령관 김책, 제1군집단(군단) 사령관 김웅, 제2군집단사령관 김무정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지휘의도와 작전 능력도 가늠할 수 있다. 노획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종류의 북한군 교범들은 대부분 1948~49년 사이에 1945년판 소련군 교범을 한국어로 번역해 발간된 것으로 다른 문서들과 함께 사용하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전술교리와 작전의 실체를 연구하는데 더없이 좋은 자료들이다. 그중 주목할 만한 교범은 과거 대한민국 육군의 「작전요무령」에 해당하는 「야전규정」과, 전차부대 교범인 「장갑땅크 및 기계화부대 전투규정」이다.⁵⁵⁾ 이 ‘노획 북한문서’군으로부터 선별된 일부 문서들을 모은 자료집이 하기와라 료와 국방군사편찬연구소에 의해 발간되었다.⁵⁶⁾ 노획된 북한 문서는 주로 인천상륙 후 UN군의 38선 북진 시

54) NARA RG 242 Captured Enemy Documents(North Korea), ATIS Doc. No. 200261 「제389부대 제1, 2, 3대대 종합전투보고」; ATIS Doc. No. 200446[제4포병연대 제1대대], 「전투일지」.

55)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평양, 1948);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장갑땅크 및 기계화부대 전투규정: 제2부 대대, 련대, 련단』(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49). 후자의 원출처는 NARA, RG 242 Captured Enemy Documents(North Korea), ATIS Doc. No. 200521.

56) 국방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서울: 국방군사편찬연구소, 2001); 국방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 북한군) 병사수첩』(서울: 국방군사편찬연구소, 2001); 萩原遼 編, 『(米國國立公文書館所藏) 北朝鮮の極秘文書 (1945年8月-1951年6月)』

기까지의 문서가 주를 이루며, 그 양이 점차 줄어들어 1951년 3월경이 되면 노획된 문서는 매우 드물다.

노획문서들과 또 다른 소스를 통해 국내에 입수된 전시 북한 원사료를 모은 것으로 군사작전이 아닌 북한의 전시 정치와 행정 및 동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서들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연속 간행하고 있는 『북한관계사료집』 시리즈에 담긴 사료들이다. 이 사료집에 활자화된 사료들은 원본 형태의 사료보다는 그 직접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이용에 편리하다. 사료들 중에서 한국전쟁 시기의 분량은 전쟁 전 시기에 비해 적지만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들로서는 아쉽게도 일부분만이 가용하지만 조선로동당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집」, 「정치위원회 결정집」, 「조직위원회 결정집」,⁵⁷⁾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군사위원회 결정집」 등은 전시 북한정부의 중요 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다.⁵⁸⁾ 각 결정서들의 서두에는 전시 북한의 사회상들과 정책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로동신문』이나 그 외의 북한의 공개 출판물에서 감추어진 전시 북한 사회의 실상을 포착할 수 있다. 북한의 전쟁노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서들은 큰 가치를 갖고 있다.

上中下(大阪: 夏の書房, 1996) 중 하권이 전쟁시기의 조선인민군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57)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29』, 『북한관계사료집 30』(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8).

58)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23』(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6). 그 외에 전시에 발행된 몇 가지 선전 문건들이 『북한관계사료집 25』(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6)에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관계사료집』 17-19권에 1950년에 생산된 여러 주제에 대한 산발적 문서들이 실려 있다.

4. 신 문

신문은 역사 연구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 자료인데, 전시에 발간된 북한 신문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신문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시점에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는 면에 있어서는 요긴하지만 사건의 배후를 아는 데는 항상 제약이 따른다. 신문은 당 선전선동부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었고 불리한 사실들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예컨대 전쟁기간 동안 북한에서는 여러 종류의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지만 전염병 발생 통계는 북한 신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신문에서는 다만 정부의 지시에 의해 ‘전염병 방역사업’이 어떻게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⁵⁹⁾ 『로동신문』, 『민주조선』, 『해방일보』에 가장 많이 실린 것은 영웅적 전사들의 전투경험담인데, 공간 전쟁사의 전투에 대한 서술이 개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은 전투사 연구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의 논조나 기사의 내용은 해당 시기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달성해주기를 희망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북한에서 신문의 역할은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 보도보다는 선전선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전시 북한의 신문들 중 『조선인민군』은 민족보위성 기관지로 발행되어 인민군내에서만 유통된 일간신문인데, 주로 전투영웅담과 전과, 그리고 북한을 지지하는 외국의 동향을 소개하는데 반해, 민족보위성 내부의 활동 상황에 대한 기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내무성의 기관지 『보위』, 『승리를 위하여』 등은 아주 일부분이 남아 있어 연

59) 소련대사관은 1954년 북한의 수년간 전염병 통계를 작성하였는데, 1951년의 경우 발진티푸스 환자는 무려 13만 2,065명, 이질,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등은 수천 명씩의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Posol'stovo SSSR v KNDR, "Koreiskaia narodno-demokraticeskaiia respublika v 1954 godu / Sprovochnye materialry / (Pkhien'ian, mart, 1955 g.).

구에 사용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일반적 실상은 노동당보인 『로동신문』,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점령지인 서울시 인민위원회의 기관지인 『해방일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신문들은 적은 수가 통일부 북한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1950년 2월부터 조선인민군이 월간으로 발행한 『군사지식』이란 군사 전문 잡지는 민족보위성이 월간으로 발행한 군사전문지인데 그 중 몇 개 호가 노획문서안에서 발견된다. 그 내용은 전술지식이 중심을 이루지만 고위 장성들의 선전적인 글, 전투참가자들의 전투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조선중앙년감』과 김일성 저작

이러한 자료들보다는 현장성이 떨어지지만 사후적인 편집 과정이 비교적 적은 사료로는 『조선중앙년감』을 들 수 있다. 이 연감에 포함될 내용들은 발행 당시 편집진에 의해 선별되지만 사건 발생 후 1~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행되게 되는 연감은 후일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변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중요 사료 중의 하나이다. 전쟁 시기를 포괄하고 있는 연감은 1951~52, 1953년도 판이다. 다른 시기의 북한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연설문, 담화문, 저술을 묶은 『김일성 선집』,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김일성전집』은 사용하는데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하나 중요한 사료집임에 틀림없다. 전쟁 직후에 편집된 『김일성 선집』은 그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전쟁 당시 문서는 그리 많이 수록되지 않았으며, 특히 군사적 상황을 직접 언급한 문서들은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발행된 『김일성전집』 중 제11~15권은 전쟁 시기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김일성 저작집류 중에서 군사관계 저술, 담화문 등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⁶⁰⁾ 『조선중앙년감』에 실린 김일성 문건들과 대

조해 볼 때 어떤 문건들은 후에 윤문이나 부분적 개작이 이루어졌던 점이 확인되나, 그것들은 주로 소련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표현에 관련되어 있으며, 사실 자체의 왜곡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다.⁶¹⁾

『김일성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관련 연설, 담화, 명령서들은 과거에 공개된 자료도 있지만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가 상당수 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러한 담화문 등이 부분적으로 개작되거나 윤문을 거쳤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고 읽는다면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료들과 연관해서 읽는다면 선전적인 수사로부터 유용한 사실들을 가려낼 수 있다.

6. 북한 관련 러시아와 중국 문서

북한이 생산한 문서 외에 전시 북한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료는 소련대사관과 북한주재 소련군사고문단의 문서다. 북한이 사료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사료들은 사건의 막후에서 전쟁 수행상의 중요한 문제들이 어떻게 고려되었고 결정되었는가를 아는데 지극히 중요하다. 1960년대 이후와는 달리 전쟁시기에는 소련대사와 북한군사고문단이 북한의 전 영역에 대해 고문들과 소련 출신 고위관리들을 통해 사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과 소련대사를 통해 이루어진 고위 수준의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경제·군사 문제를 파

60) 김일성 저작집류에 대한 정밀한 사료 비판을 가한 논문들로는 서대숙, “총론: 김일성의 작문헌”, 강광식, “1960-70년대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과 북한사료의 변조양상”, 서대숙·이완범·전현수·강광식 공저, 『북한현대사 문헌연구』(서울: 백산서당, 2001), 15-73, 199-252쪽.

61) 남한에서 편집된 북한자료집으로서 전쟁 시기를 커버하고 있는 책은, 김준엽·김창순·이일선·박관옥 공편, 『북한연구자료집』 제2집,(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악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쟁 수행에 관련된 중요 문제들에 관한 스탈린 및 소련지도층과 김일성과의 사이에 교환된 전문은 통상 소련대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문서는 북한의 전쟁 수행의 모든 국면에 스탈린이 매우 깊숙하게 관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련대사는 스탈린의 요구에 의해 김일성과 협의할 북한의 주요 문제에 대해 수시로 전문으로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전문들에 나타난 스탈린과 김일성의 관계는 정확히 보호-피보호 관계였으며 김일성은 스탈린의 결정과 조언에 대해 거스른 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스탈린을 제외한다면, 김일성은 소련대사의 조언에 대해서는 가끔 그의 독자적인 의견을 고집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⁶²⁾ 군사 전략 문제에서 김일성은 대체로 소련대사와 소련군사고문단장의 조언을 대부분 수용하였지만 때로는 그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거나 소련측의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련대사관은 본국에 정기적으로 북한의 대외 관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여론 등 사회의 전 영역에 대한 연례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수시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에 제출했고, 소련대사관은 북한의 주요 고위활동가들과 면담록을 유지했다. 전시 북한에 대한 이러한 전문과 보고서들은 그 일부가 국내에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1994년에 건네준 외무부 소장의 『한국전쟁관련 소련 극비외교문서』,⁶³⁾ 미국의 윌슨센터 다국적냉전사연구기획 회보(*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에 공개된 자료,⁶⁴⁾ 러시아 외무성

62) 예를 들면 김일성은 1951년 2월 사단 당 병력수가 적더라도 많은 수의 사단을 거느리고자 했다. 이에 대해 소련대사 겸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는 그것이 김일성의 '거대병'의 일종이며 이를 설득해서 사단수를 줄이고 사단 당 인원수의 충실을 기해 사단의 질적 전투력을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스탈린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 예는 김일성은 소련대사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그의 고집을 세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광수, "인천 상륙 이후 북한군의 재편과 구조변화", 앞의 책, 199-201쪽.

63) 외무부 역, 『한국전쟁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1-4권.

64) *CWIHP Bulletin*, Issues 3, 6/7, 11, 12/13에 수록되어 있다. 이 회보의 다른 호에는 한국전쟁에 관련된 스탈린, 모택동, 주은래 간의 대화록이 수록되어 있다.

의 고위외교관인 A. V. Torkunov가 문서해제집의 형태로 펴낸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문서집,⁶⁵⁾ 그리고 타이완 근대사연구 중심에서 중국학자 심지화(沈志華)가 편집해 번자체 중국어 번역으로 2000년에 발간한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⁶⁶⁾에 수록된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의 자료집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집 중 가장 많은 554건의 한국전쟁 관계 러시아 문서고 문서들을 싣고 있다. 앞에 언급한 자료집들에 나타난 자료들과 중복된 문서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공개된 바 없었던 전시 북한의 경제 상태, 전쟁에 관한 여론 동향, 전쟁 중 산업피해 통계, 남한에서의 토지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소련·중국·북한간의 휴전회담 전술에 관한 의견교환, 소련으로부터 받은 전시 군사 및 산업차관 변제 문제 등 전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런 자료들은 연구자들에게 같은 문제에 대해 북한측 공식역사가 기술하고 있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전시 북한의 최고 수준에서의 정책 결정을 연구할 때 이러한 자료들과 북한측 사료, 북한 공간사를 교차 대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련의 원사료는 전쟁 전 과정에서 소련-북한관계와 북한 내부의 사정을 아는데 중요한데, 몇몇 자료들은 오랫동안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전쟁 개전’의 실상을 명확히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 우선 전쟁이 스탈린과 김일성·박헌영간의 면밀한 전략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는 1950년 4월 두 북한 지도자의 모스크바 비밀방문시 스탈린과 가졌던 면담을 요약한 면담록이다.⁶⁷⁾ 이 면담에서 스

65) A. V. Torkunov, *Zagodochnaia voina: Koreiskaia konflikt 1950-1953 godov*(수수께끼의 전쟁: 한국전쟁 1950-1953년) (Moskva: ROSSPEN, 2000), 허남성·이종관 역, 『한국전쟁의 진실: 기원, 과정, 종결』(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66) 沈志華 編,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上·中·下冊(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3).

67)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진말』

탈린은 삼단계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인민군을 은밀히 38도선 가까이로 이동시키고, 둘째, 남한이 수용할 수 없는 ‘평화제외’를 한 뒤, 셋째, 남한이 평화제외에 대해 거부한 후에 기습적으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또한 남한측이 먼저 도발해 북한군이 ‘반격’을 가했다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전쟁 초기 웅진에서 남한을 자극하는 소규모 공격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스탈린은 미국이 개입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남한을 점령할 수 있도록 군의 기계화와 신편 사단의 준비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갖출 것, 그리고 속전속결전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남침에 관련해 주목할 두 번째 문서는 1966년 소련외무성이 브레즈네프를 위해 작성한 한국전쟁에 관한 개요이다.⁶⁸⁾ 이 문서에는 남침작전 계획의 개요가 요약되어 있고, 조선인민군은 일일 15~20km의 속도로 진군해 22~27일내에 남해안까지 점령할 계획이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의 문서는 1950년 6월 26일 소련대사인 슈티코프가 소련군 총참모차장 자하로프 장군에게 개전 이후 2일간의 작전 상황을 요약해 서신으로 보낸 것이다.⁶⁹⁾ 그는 조선인민군의 사단 이상 작전계획이 소련군사고문단에 의해 작성된 것, 조선인민군이 공격을 위한 38선 이동이 남한에 포착되지 않아 기습에 성공한 것, 그리고 조선인민군이 1950년 6월 25일 04시 40분에 공격을 개시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남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했다. 이 문서들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이 소련과 북한 간에 오래전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38선충돌의 격화나 남한으로부터의 선제공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드러내준다.⁷⁰⁾

(서울: 도서출판 열림, 1998), 52-55쪽; 『서울신문』 1995년 5월 24일자.

68) mb-04339/gs, “On the Korean War, 1950-1953,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s”, *CWIHP Bulletin Issue*, No. 3(Fall 1993), pp. 15-17.

69) ‘Top secret repor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omrade Zakharov, 26 June 1950,’ trans. by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Issue*, No. 6-7(Winter 1995/1996), pp. 39-40.

70) 그동안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이 제기한 바 있었던 웅진에서 남한의 선제공격설에 대한

소련군사고문단 문서들은 전시 조선인민군의 작전과 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료다. 소련군사고문단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민족보위성, 전선사령부, 각 군집단사령부 등 고위사령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직위에 군사고문들을 배치하였는데 그들을 통해 조선인민군의 모든 활동이 매일 소련군 총참모부에 보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소련군 총참모부는 매일매일 전선 상황, 주요 첩보, 주요 사령부의 결정 등에 관한 일일 「전투일보」를 작성했다. 이 전투일보는 최고사령부의 결정과 인민군 대부대들의 매일의 작전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전투일보는 매일 작성되기 때문에 현장성이 가장 높은 사료라고 할 수 있다.⁷¹⁾ 소련군사고문단은 매 중요한 시점에 조선인민군의 상태와 문제점 등에 관해 본국의 총참모부 주요 보직자에게 보고했는데, 1950년 11월 소련군사고문단장 겸 소련대사로 부임한 라주바예프 중장 명의로 발송된 이 자료들은 전시 조선인민군의 작전행동뿐만 아니라 일정 시기의 조선인민군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자료는 국방군사편찬연구소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3권으로 편찬하였다.⁷²⁾ 비록 1차사료는 아니지만 1950년대 말에 소련군 총참모부의 주도로 한국전쟁 관련 1차사료를 바탕으로 편집한 책, *Voina v Koree 1950-1953* (조선전쟁, 1950-1953)⁷³⁾은 전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작

비판은 필자의 줄고, “한국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웅진전투: 소련군 총참모부 문서와 북한 노획문서를 중심으로”, 『군사』 제41호(2000년 12월), 312-346쪽 참조. 또한 광범한 사료를 동원해 북한의 ‘북침설’을 반박하고 북한의 전쟁으로의 이행과정을 세세하게 밝힌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서울: 나남출판, 1996), 8-10장 참조.

71) TsAVMTs GSh VS RF (Arkhiv-TsAMO-A) Fond 16, Opis' 3139, Delo 133 “Zhurnal boevykh deistvii v Koree s 28 iunია 1950 g. po 31 dekvria 1951 g.” (조선전쟁 전투일보, 1950년 6월 28일(25일)-1951년 12월 31일), Ll. 1-327.

72) 국방군사편찬연구소 역/편, 『소련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3권(서울: 국방군사편찬연구소, 2001).

73) S. S. Lototskii, *Voina v Koree 1950-1953* (조선전쟁 1950-1953) (Sankt-Peterburg: Poligon, 2000).

전행동뿐만 아니라 각 병종, 병과별 활동을 분석한 책으로 1차사료에 준하는 중요 연구서이다. 이 책은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와 일치하는 점도 많지만 인민군 작전행동에 관해서는 후자가 주로 1950년 말까지의 작전 분석을 담은 반면, *Voina v Koree 1950-1953*는 전쟁 후반기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전쟁 후반기 작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북한 공간사들이 은폐하고 있는 부대명, 부대 규모, 무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발간된 한국전쟁 관계 러시아 저작들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문서고 문서들을 원문 그대로 싣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책들도 원사료의 갈증을 해결해준다.⁷⁴⁾

1950년 10월 19일부터 ‘중국인민지원군’이 대거 참전한 후 북한의 전쟁수행은 소련의 통제와 지원을 받았지만 많은 부분 중국인민지원군과의 협조 혹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통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중국군 참전 초기에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의 지휘관계는 협조의 형태를 띠었으나 1950년 12월 8일 중조(중조)연합사령부가 성립한 이후 양군의 작전은 연합사령관 팽덕회가 중국인민지원군 참모부의 보좌를 받아 모든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연합사령부의 명의로써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를 통해 예하 중국군 병단 및 군,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및 군단에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중조연합사의 성립과정과 그 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밝혀졌다.⁷⁵⁾ 팽덕회는 중요 작전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대해 김일성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연합사를

74) Iuri Vanin et als. (eds.), *Voina v Koree 1950-1953: Vzgliad cherez 50 let* (조선전쟁 1950-1953: 50년후의 견해) (Moskva: Pervoe Marta, 2001); Popov, I. M., S. Ia. Lavrenov and V. N. Bogdanov, *Koreia v ogne voiny: k 55-letiiu nachala voiny v Koree 1950-1953 gg.* (전화속의 한국: 한국전쟁 발발 55주년에 붙여) (Moskva: Kuchkovo Pole, 2005).

75)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호(2001년 12월), 45-75쪽;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와의 모순과 갈등”, 국방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제2집(서울: 국방군사편찬연구소, 2002), 587-603쪽.

지휘했으나 최종적인 결정권과 전방부대의 작전에 대한 명령권은 중조연합사령관인 팡덕희에게 있었다.⁷⁶⁾ 팡덕희의 작전계획은 모택동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스탈린에게도 보고되었고, 그들의 지침, 조언과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되었다. 북한 공간사가 중국의 참전 이후에도 마치 중국군과 북한군의 주요 작전계획을 모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구상하고 시행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 거짓이었음은 중국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한국전쟁에서 중국 참전에 관한 사료들을 조심스럽게 공개해 왔는데 초기에는 모택동의 문서집인 『建國以來毛澤東文稿』,⁷⁷⁾ 팡덕희의 문서 선집인 『彭德懷軍事文選』⁷⁸⁾ 등을 통해 전시 중·소·북한 관계를 크게 노출시키지 않는 문서들을 출판했다. 1990년대 말부터 전시 중국·북한간 관계에 대해 좀더 진실된 실상을 알 수 있는 『彭德懷年譜』, 『毛澤東年譜』, 『周恩來軍事文選』, 『周恩來年譜：1949-1976』 등이 발행되었다.⁷⁹⁾ 이 책들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관련된 사실들이 상당수 새로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중국측이 공개한 자료들과 회고록 중 일부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된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韓國戰爭과 中國』(전 2권)에 수록되어 있다.⁸⁰⁾ 또한 2000년에 중국이 ‘항미원조전쟁’ 50주년을 기념해 쓴 『抗美援朝戰爭史』(전 3권)에서도 북한·중국 관계에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다수 공개되었다.⁸¹⁾

- 76)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줄고, “인천상륙 이후 북한군의 재편과 구조변화”, 171-209쪽 참조.
- 77) 모택동의 한국전쟁 관련 전문들은, 毛澤東, 『建國以來 毛澤東文稿』 內部本(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87-1992), 제1-4책 참조.
- 78) 彭德懷傳記編寫組, 『彭德懷軍事文選』(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88).
- 79)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8); 王焰 主編, 『彭德懷年譜』(北京：人民出版社, 1998); 『毛澤東年譜』(전 3권)은 필자가 직접 보지 못했으나 서지상으로는 확인하였다.
- 80)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역, 『韓國戰爭과 中國』 I, II(서울：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2002).
- 81)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抗美援朝戰爭史』 全3卷(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 이 전의 중국측의 공식역사에서도 북한에 관한 사실이 기술되어 있지만 소략하다. 軍事科學

7. 회고록 및 증언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한국전쟁 당시 북한측에 서서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들과 전시 북한과 관계를 맺었던 러시아인, 중국인들의 회고담이 가능해져 북한의 전쟁 수행에 관해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기억에 의존하는 회고록은 항상 부정확성을 갖기 쉽고 때로는 회고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건의 선별적 회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신뢰할 수는 없으며 다른 문서 자료와의 교차대조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증언으로는 전쟁 기간 내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와 전선사령부의 작전국장을 역임했던 유성철의 회고를 들어야 할 것이다. 총참모부의 중요 직책을 담당했던 그는 북한의 전쟁 준비와 개전에 관한 중요한 증언을 남겼다.⁸²⁾ 그의 증언은 기본적인 사실에서는 당시 문서사료와 부합되며 신뢰할만한데 세부적인 면에서는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해 기억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민군의 남침작전계획이 소련군사고문단에 의해 작성되었고 인민군은 그에 따라 작전을 시행한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그것은 앞서 살펴본 소련대사 슈티코프의 문서와 부합한다. 그런데 그는 서울 점령 이후에는 인민군이 작전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 작전을 수행했다고만 증언했다.⁸³⁾ 한강선이남의 인민군 작전수행에 관해 그의 증언은 너무나 소략하다. 그것은 일부에 있어서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러시아 문서를 통해 보면 인민군 사단급 작전계획은 전쟁계획 제1단계, 즉 서울점령 및 수원-삼척선 점령까지만 세워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민군은

院 軍事歷史部,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北京:軍事科學出版社, 198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세경사, 1991).

82)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편,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서울:한국일보사, 1991), 25-153쪽.

83) 위의 글, 92쪽.

남해안 점령까지의 4단계로 된 개략 작전계획과 매단계별 달성 목표 및 시간 계획을 수립하였음이 명백하다.⁸⁴⁾ 대전포위전 같은 작전이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또한 1950년 9월의 낙동강에서의 ‘제5차공세’ 당시에는 사단별로 치밀한 작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의해 작전을 전개했다는 것이 노획 북한문서에 포함된 사단 전투명령으로 확인된다.⁸⁵⁾

이상조는 비록 개전 초에는 인민군의 중요 직책을 맡지 않았으나 인민군이 압록강으로 후퇴한 후에는 만주에 설치한 최용건의 ‘통화사령부’에서 군의 부총참모장 겸 정찰국장이라는 고위직에 임명되었으며, 후에는 민족보위성 정찰국장을 담당하다가 휴전회담시 북한측 대표가 되었다. 그는 그가 담당했던 직책으로 보아 전시 북한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증언할 수도 있었는데, 남한 방문시의 회고에서 전쟁 결정과 전쟁 실패에 대한 김일성의 책임에 대해서 증언했을 뿐,⁸⁶⁾ 당시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1950년 9월초 중국방문시 그를 통해 모택동이 인천상륙에 대비하라는 충고를 김일성에게 전했으나 김일성이 그를 무시해 인민군을 파국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만 증언했다.⁸⁷⁾

북한에서 김일성 외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고위 군인들의 회고록이나 전기를 출판한 적이 없으나, 유일한 예외는 전쟁시에 총참모장을 지냈으며 1950년 9월초에 전사한 강건의 전기다. 이 책은 안룡선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책명은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 강건』이다. 책의 집필 의도는 만주빨치산 시절부터 김일성에 대해 절대 충성하던 강건의 모습과 두 사람간의 관계에

84)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 136-137쪽.

85) [인민군] 제2보사참모부, 「전투명령」(1950년 8월 22일); [인민군] 제9사단 참모부, 「전투명령」(1950년 8월 26일).

86) 이기봉 편저, 『“증인” : 전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 이상조』(서울: 원일정보, 1989), 77-79쪽.

87) 이상조·황용주 대담, “김일성은 모택동의 후퇴충고를 묵살했다”, 『월간중앙』 1990년 8월호. 이상조의 1950년 8월말 중국방문에 관해서는,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Korean War 1950-1953*(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 73에서도 확인된다.

서 나타난 김일성의 천재성과 자애심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작가 안룡선은 책을 쓰기 위한 자료로서 강건의 일기, 강건 휘하에서 참전했던 군인, 강건 부인 등의 회고담과 그 외의 전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⁸⁸⁾ 이 책에 김일성의 위대성과 그에게 강건이 보였다는 헌신적 모습에 대한 유치한 묘사를 접어둔다면, 우리는 전쟁 이후 총참모부의 활동에 관해 지금까지 북한이 감추어오던 ‘사실’들을 포착해낼 수 있다. 이 책은 다른 자료와 함께 면밀히 대조해 사용하면 인민군이 왜 서울점령 후에 바로 남진을 하지 못했는가, 그 후의 인민군의 내부 문제는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인민군 공병 소좌였다가 전쟁포로가 된 다음 포로교환시 제3국행을 선택했던 주영복의 증언⁸⁹⁾은 러시아문서들의 개방 이후 가용해진 자료들과의 대조해 볼 때 더욱더 그의 증언의 신뢰성이 높았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전쟁 전 그의 총참모부 근무경험과 포로수용소 시절 인민군 고위급 군관포로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의 배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전적인 면보다는 군내의 분위기를 주로 설명하는 여정(본명 강수봉), 김석중(본명 김학천), 이영식(본명 육철식), 최태환의 증언도 중요하다.⁹⁰⁾ 육철식의 증언은 대남계릴라 양성기관이었던 강동정치학원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일찍이 전쟁 중에 남로당원으로 인민군에 몸담은 뒤 후에 남한에 남파되었다가 귀순한 조석호, 소정자의 경험과⁹¹⁾ 전향을 거부한 채 남한에 살았던 전 남로당원 김진계의 증언⁹²⁾도 인민군 하급

88) 안룡선,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 강건』(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8).

89)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상·하(서울: 고려원, 1991).

90) 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서울: 공동체, 1989); 여정, 『불계 물든 대동강』(서울: 동아일보사, 1991); 김석중, 『삭풍』(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92); 이영식(본명 육철식), 『빨치산』(서울: 행림출판, 1988).

91) 조석호, 『해부된 흑막: 남로당원이 본 북한』(서울: 서울신문사, 1953); 소정자, 『내가 반역자냐?: 전향 여간첩의 수기』(서울: 방아문화사, 1966).

92) 김진계 구술, 김응교 정리, 『조국: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상·하(서울: 현장문학사, 1990).

부대내의 사정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제105전차사단 정치장교 출신이었던 오기완의 증언⁹³⁾은 최근에 공개된 여러 자료와 대조해 볼 때 자신이 경험한 것 이외의 문제에 대한 회고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풍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섞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소련출신 북한 군인들의 집단적 회고라 할 수 있는 책이 임은이라는 가명을 썼던 북한 내무성 소속 허진 소좌의 『김일성 정전』이다.⁹⁴⁾ 이 책은 주로 소련과 및 연안파에 대한 김일성의 무자비한 숙청에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지만, 러시아에 거주했던 소련과 장군출신들의 진술을 종합해 기술함으로써 사실에 충실하다. 그는 또한 안천파의 면담에서 웅진에서의 개전 상황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했다.⁹⁵⁾ 1990년 재소 북한 망명인들인 박병율, 강상호, 정상진, 장학봉, 송진파가 MBC-TV와 인터뷰한 것도 전쟁시 북한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증언들이다.⁹⁶⁾

연안 출신 북한 군인이었던 김중생이 많은 연안파 생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쓴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⁹⁷⁾은 연안 출신 북한군인들에 대해 허진의 「김일성 정전」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연안 출신 군인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쓰여졌고 숙청과 그 후의 그들의 운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쟁 시기의 경험 내용이 소략한 것이 연구자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책이 제공하는 정보는 조선인민군 연구에 큰 기여를 한다.

군인들의 회고는 아니지만 전 고위 노동당원들의 증언은 전시 북한의 정치로부터 주민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전쟁 중의 북한을 이해하는데 중요하

93) 오기완, “북괴남침의 실상”, 조선일보사 편, 『전환기의 내막』(서울: 조선일보사, 1982), 495-519쪽.

94) 임은, 『김일성정전』(서울: 옥촌문화사, 1989).

95) 안천, 『남침유도설 해부』(서울: 교육과학사, 1993), 280-284쪽.

96) 재소 북한 망명인들, “6·25전쟁은 김일성이 일으켰다”, 김철범 엮음, 『진실과 증언: 40년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서울: 을유문화사, 1990), 78-91쪽.

97)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다. 박갑동의 증언은 그와 남로당파를 숙청했던 김일성에 대한 반감으로 사실 서술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 ‘김일성은 전쟁주창자였으나 박헌영은 평화통일 노선을 견지했을 것이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이 러시아 사료들에 의해 증명되었지만, 전시 중국·북한 관계 등 정치권의 동향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⁹⁸⁾ 숙청당한 연안 출신 당 활동가인 고봉기, 홍순관 등의 회고도 반김일성 감정의 격렬한 표출이라는 점에서는 박갑동과 동일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김일성의 비서를 지낸 인물들로서 그들이 아니라면 누구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전시 김일성의 행적을 증언하고 있다.⁹⁹⁾ 소련출신으로서 인민군 총참모부에 근무했고 후일 소련대사를 지낸 바 있던 박길룡의 증언은 짤막하게나마 북한의 지도층 중 비연안파 활동가들이 중국의 참전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불만스런 심정을 전해주고 있다.¹⁰⁰⁾

권력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열렬한 김일성 지지자들이었던 사람들의 회고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대중적 지지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증언을 담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인 김석형은 전쟁 당시 북한 안전기관의 하위 정보책임자로서 후방의 반간첩 투쟁의 일선에 있었는데 북한 하부관료의 활동과 그들의 심상을 여실히 보여준다.¹⁰¹⁾ 김일성이 해방 후 토지개혁과 노동당 창당으로 과거의 사회 하층의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한 것, 그리고 김일성이 대중들에게 반일, 반외세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등이 그들을 김일성의 열렬한 지지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당 원으로서 민주당에 들어가 프락치로서 활동했고 후에 남한에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대한민국에 전향한 한승격의 회고¹⁰²⁾는 전쟁 중, 특히 인민군

98) 박갑동, 『박헌영: 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서울: 인간사, 1983); 박갑동 지음, 구윤서 옮김, 『한국전쟁과 김일성』(서울: 바람과 물결, 1990).

99) 고봉기,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서울: 천마, 1989); 홍순관, “김일성, 전쟁과 여성편력”, 『신동아』(1994년 10월호), 188-207쪽.

100) 박길룡·김국후, 『김일성 외교비사』(서울: 중앙일보사, 1994).

101) 김석형 구술·이향규 녹취 정리, 『나는 조선로동당 당원이오!』(서울: 선인, 2001).

의 후퇴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압제적이었던 북한정권에 대해 등을 돌렸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러한 회고들은 전쟁 중에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 정권에 대한 태도가 단일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표출했던 체제옹호 혹은 반체제적 태도는 군사적 승패에 따라 공개적으로 표출되거나 개인 내부로 잠복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전쟁 시기에 월남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착촌 사람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행한 김귀옥의 연구에는 전쟁 초기 북한의 군사동원에 대한 기피현상, 인민군 퇴각과 UN군의 북한점령기 좌우대립과 상호 살륙, UN군 철수시 일반민중들의 반응에 관한 증언을 담고 있다.¹⁰³⁾

소련군사고문을 지냈던 사람들의 회고는 김일성을 포함해 조선인민군 고위 직위자들의 행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군 연해주군관구사령부에서 정치장교로 근무한 바 있던 가브릴 코로트코프(Gavril Korotkov) 박사는 한국전쟁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전쟁에 관련이 있던 소련군 고위장성들 및 한국전장에서 인민군의 군사고문으로 활동했던 소련장교들과의 귀중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내부 사정을 밝히는데 기여했다.¹⁰⁴⁾ 그는 개전 당시부터 1950년 11월까지 소련 군사고문단장을 지냈던 바실리예프 중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으로 소련군사고문단과 북한 지휘부가 기습당하게 된 사정을 확인했다.¹⁰⁵⁾ 또한 코로트코프 박사와 인터뷰를 했던 전 소련군사고문들은 인민군 고위

102) 한승격 구술·신주백 면담, 『혁명과 전향을 넘나든 삶-한승격 증언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모습』(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9), 169-339쪽.

103)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밀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제7장 참조. 전쟁전 월남자와 전 인민군 출신 포로였던 사람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 실화소설도 전쟁 전후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강용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서울: 삼신각, 1994).

104) 가브릴 코로트코프 지음, 어건주 옮김, 『스탈린과 김일성 II』(서울: 동아일보사, 1993), 215-242쪽.

105) 위의 책, 65-66쪽.

직위자들의 무능과 무지, 김일성에 의한 군내 정실인사의 실상을 증언했다. 소련군사고문단의 일원으로서 인민군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이었던 남일 대장의 군사고문이었던 소지노프 대좌는 대사 겸 군사고문단장이었던 라주바예프와 함께 김일성, 남일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는데, 그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군사지도자로서 김일성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 증언했다. 그에 의하면 김일성은 소부대 계릴라전 경험밖에 없었고 연대 이상의 대부대작전 지휘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다고 회고했다. 군사문제에 대해 김일성은 소련군사고문단장에 의존적이었다.¹⁰⁶⁾ 소련군사고문들 중 특별히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인민군 군의국장 이동화의 고문이었던 셸리바노프(I. V. Selivanov) 주장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1952년 이래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던 ‘미국의 세균전’이 실재하였는가를 밝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세균전은 북한에 전염병이 널리 확산된 가운데 ‘반미 선전’을 위해 미국이 세균전을 시행했다고 조작해 선전한 것이었다.¹⁰⁷⁾ 셸리바노프에 의하면 라주바예프는 이러한 ‘세균전 조작’을 주도함으로써 스탈린 사후 본국에 소환되어 투옥되었는데, 그의 증언은 세균전 조작에 관련된 ‘소련의 12건의 문서고 문서’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한국전쟁에 참전했거나 관계했던 중국 군인들은 1980년대 말부터 전쟁 경험에 관해 회고록을 썼는데 그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능한 북한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洪學智), 주북한 중국대사관 참찬 시성문(柴成文) 같은 사람들은 북한 고위층과의 접촉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회고록에서 전쟁 중에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측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불신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함구했다.¹⁰⁸⁾ 회고록의 저자들은 북한에 불리한

106) 황성준, “6·25는 소련군의 전쟁이었다”, 『월간조선』 1995년 8월호, 590쪽 참조.

107) 위의 책, 594쪽 참조.

108)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錄』(北京:解放軍文藝出版社, 1990), 홍인표 옮김, 『중국이 본 한국전쟁: 인해전술의 전쟁기록』(서울: 고려원, 1992); 柴成文·趙勇田, 윤영무 역,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관문점담관』(서울: 한백사, 1991).

증언은 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피했다. 모택동, 주은래, 유소기 등 중국최고위층과 스탈린 및 소련최고위층 지도자들과의 회담시 통역을 담당했던 사철(師哲)은 첸 지안(Chen Jian)과의 면담시에는 그들이 회고록에서 밝히지 않은 북한에 관련된 보다 솔직한 사실들을 털어놓았다.¹⁰⁹⁾ 문서기록과 참전자의 회고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통속소설을 쓴 엽우몽(葉雨蒙)과 손우결(孫佑杰)도 이러한 중국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따랐다.¹¹⁰⁾ 그러나 사실상 전쟁 중 참전 중국인들과 북한인들과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미묘한 관계였다. 중국 군인들은 군사적으로 무식한 북한 고위군관들을 무시했고, 북한 군인들은 자존심이 상해 중국 군인들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 북한고위층들은 타국 땅에서 오만하게 대국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을 마치 자신들의 국민인양 그들의 필요에 의해 민간을 동원하는 중국군들에게 내심 큰 불만을 가졌다.¹¹¹⁾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의 공식문헌이나 회고록 집필자들은 북한·중국간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과거보다는 좀 더 개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인들은 전시 북한의 사정에 대해 사실을 말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109)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87-88. 그러나 사철은 그의 회고록에는 그러한 사실을 쓰지 않았다. 師哲, 『在歷史巨人身邊: 師哲回憶錄(修訂本)』(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5), 431-474쪽.

110) 엽우몽 지음/오정운 옮김, 『서울로 간 모택동』 1-3(서울: 독서당, 1993) ; 쓴요우지에 지음/조기정·김경국 옮김, 『암록강은 말한다: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서울: 살림, 1996).

111) 박길용·김국후, 앞의 책, 49-50쪽.

8. 맺 음 말

한국전쟁시 북한의 전쟁 수행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에게 현재까지 우리에게 가용한 자료들은 충분치는 않지만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만한 정도이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중국의 부분적 문서고 개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차자료들은 상당히 다양한 문제들에 걸쳐 있다. 또한 전시에 북한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군인 혹은 민간인들의 증언은 문서들이 전하지 않는 실제 생활에서의 생생한 경험들을 제공한다. 물론 지금까지 공개된 러시아, 중국의 문서들이 조선인민군의 세세한 전투사를 연구하는데 이용될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문서들은 군사전략, 혹은 대작전에 관련된 계획 수립과 작전지도를 재구성할 정도의 구체성은 가지고 있다.

전쟁 수행의 비군사적 측면, 즉 전시 경제 운용, 민간 동원, 군수물자의 마련, 식량 및 생필품 해결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현재 가용한 자료들로 아주 정밀한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의 전쟁 노력을 파악할 수는 있다. 이 점에서는 특히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과 군사 고문단의 문서들과 노획된 북한 문서들을 대조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의 문서들과 노획 북한문서들이 북한의 전쟁노력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특정한 부분에 관련된 1차자료들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서들에만 의존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전쟁 수행에 관해 전체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북한 공간사를 대면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공간 전쟁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히 정치적·선전적 목적을 갖고 기술되어 있으며, 선전적 목적에 맞추어 기술된 사실들에 있어서는 왜곡과 과장이 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경험으로부터 필자는 개전과 관련된 사실들, 북한-중국-소련 관계, 군작전의 전과

및 피해, ‘미군에 의한 학살’, 세균전 등 매우 민감한 사안에서는 왜곡, 은폐, 과장이 이루어지는 한편, 다른 사건들의 기술에는 북한 공간 전쟁사가 대부분 사료적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연구를 위해 북한 공간 전쟁사를 읽을 때 ‘수사(修辭)’를 벗겨내고 ‘사실(史實)’을 가려내는 독법(讀法)을 개발해야만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독법이 자의적 판단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으나,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 생산 1차사료와 교차대조하면서 읽는다면 사실을 확립하는데 유용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다른 역사연구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의 전쟁수행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다양한 자료들을 면밀하게 비교·대조하는 치밀성이 요구된다. 그것은 북한의 공개 문헌들이 선전적 목적에서 숨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자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전쟁시 북한의 전쟁수행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시 북한의 전쟁수행에 대한 사실적 이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올바른 성격 규명에 이르는 데도 중요하며, 또한 북한이 전쟁에서 얻은 군사적 경험과 교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또한 그 연구는 전후 북한의 국내정치 발전, 대외관계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엄격한 사료비판과 사료의 교차대조를 통해 우선 사실을 사실대로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원고투고일 : 2005. 4. 21, 심사완료일 : 2005. 6. 4)

주제어 : 한국전쟁, 북한, 인민군, 노획북한문서, 라주바예프

<ABSTRACT>

A Critical Survey of Source Materials regarding the North Korean Conduct of the Korean War

Kim, Kwang-soo

This article aims to survey critically various source materials available regarding the North Korean conduct of the Korean War. By doing so, it tries to introduce possible researchers and readers to the subject which is important in reaching to a more fuller understanding of the war, but has long been neglected due to the lack of reliable sources.

The first group of source materials in review are North Korean official war histories and other related publications, which have long been suspected as not being genuine history of the war by outside researchers because of characteristic propaganda nature in those books, but remains as the only systematic works to be consulted with critical source analysis by researchers in furthering their study of the subject matter.

The second group of source materials dealt with in this article are various: (1) captured North Korean military documents during the war, which are held in US NARA, and give researchers access to inner working of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during the war, (2) Collected works of Kim Il Sung, which are indispensable in studying the wartime high level decision-making of North Korean war machines, (3) Russian, Chinese and North Korean archive materials as well as testimonies of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war as war leaders, politicians, military advisors, officers, and civilian party-government workers. This group of evidence provide re-

searchers with possibility of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facts in North Korean official war histories and enable them to have access to new historical facts that have not appear in North Korean official histories.

As conclusion, the article suggests a cross-examination of multi-national source materials in re-establishing historical facts regarding alliance relationship among top leaders of North Korea, China, and Soviet Union, strategic decision making, planing and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by North Korean People’s Army, and mobilization of wartime economy by North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war.

Key Words : Korean War, North Korea, People’s Army, Captured North Korean Documents, Razuvaev

K C I